

미지의 시간으로

오민展 2019. 11. 9~10 플랫폼-엘컨템포러리아트센터
박민하展 1. 16~2. 4 온수공간

감각할 수 없는 것을 감각하려는 시도는 아직 가보지 못한 어딘가 먼 곳을 지향하면서 지금 여기의 물리적 조건을 거듭 재배치하는 일이며, 따라서 감각의 장치이자 산물로서 우리 자신을 재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박민하와 오민은 무언가를 집요하게 보고 들으려는 시간을 반복해서 가동하면서, 각각 '영화'를 보는 사람과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관람자'와 '공연자'를 조건 짓는 지향적 운동과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지향적이고 거의 무의식적인 운동들, 엄격하게 규정된 도구적 절차와 그에 간섭하는 충동과 저항들을 일련의 무빙이미지로 재구성해왔다. 두 사람의 신작 〈초청자〉와 〈밤의 카르토그래피〉는 제각기 고유한 시간과 공간과 역량을 가진 인간과 비인간 신체들을 연합하여 감각할 수 없는 것을 향한 매체적 배치를 구성하고 관객을 초대한다.

초청자, 음악-영상-관람-공연

오민의 〈초청자(Invitee)〉는 여러 겹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기 위한 음악의 설계도가 있고(〈부재자〉), 그것을 가동하는 연주자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이 있고(〈참석자〉), 관객을 초대하여 그 영상을

상영하는 공연이 있다(〈초청자〉).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면, 현장에서 공연을 가동하는 것은 영상이 계획된 대로 상영될 수 있도록 공연 시간 내내 스크린과 미디어 장비를 옮기고 재설치하는 무대 스태프 또는 '공연자'들이다. 그들의 움직임과 함께 공연장은 그 전체가 하나의 미디어 시스템으로서 시시각각 모습을 바꾼다. 따로 객석이 마련되지 않은 공연장 내에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 시작된 움직임이 점차 격렬해지기 시작하면, 관객은 자신이 이 역동적 입방체의 외부적 관찰자가 아니라 내부적 구성 요소로서 초대되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초청자〉의 내부에서 관객은 다중적 운동에 휘말린다. 그들은 성실한 관객으로서 〈참석자〉의 이미지에 집중하며 〈부재자〉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쓸 수도 있고, 〈참석자〉를 보여주기 위해 분주하게 왔다갔다하는 공연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수도 있다. 조금만 관찰해보면, 공연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영상을 재생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일련의 규칙을 세우고 동선을 계획하여 여러 번 연습한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공연장을 불균질하게 채우고 있는 관객들 자신이, 미리 예측되고 대비되었지만 결코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미지의 요소로서 공연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동시에 그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관객은 공연장 내부에서 잘 보고 들으려고 애쓸수록 스스로 복합적인 움직임 속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그에 반응하게 된다. 공연장을 채운 사람들과 기계 장치들, 그것을 통해 보이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들이 제각기 그러나 느슨하게 연동되어 움직일 때, 이들은 한마음으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된다. 관객은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총체적인 공기의 진동을 소리 없는 소리를 위한 음악의 한 형태로 감상할 수도 있고, 스스로 그 음악을 만드는 공연자의 일원으로서 어떤 진동을 발생시키고 싶은가를 생각하며 움직여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완전한 조화를 꿈꿀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깨뜨리고 싶을 수도 있지만, 작업의 구조는 둘 중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은 아직 모르는 완벽함을 향한 열망 속에서 함께 머무르는 하나의 방법이다.

오민의 작업은 오랜 시간 그에게 내재화되었던 고전 음악의 이상적 형식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그 자신에게 결코 완전히 내재화되지도 않았다는 것, 다시

오민 〈초청자〉 라이브 퍼포먼스
약 60분 2019 〈초청자〉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무엇이고
듣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작가의 고민에서 출발한다.
(부재자)를 연주하는 장면을
기록한 영상작업 〈참석자〉의
설치를 전하는 퍼포먼스다.



위 · 박민하 <밤 조종사들>
싱글채널 비디오, FHD, 흑백,
사운드 11분 2020
아래 · <밤의 카르토그래피 I>
싱글채널 비디오, FHD, 흑백
12분 30초 2020, 박민하
개인전 <밤의 카르토그래피>는
화성 탐사 로버(rover)가 지구로
보내온 사진 684,730장에서
출발한다. <밤의 카르토그래피
>는 화성 표면 사진들로
이루어진 영화이자 지도다.

말해 자기 자신과 음악적 이상 사이에 어떤 수수께끼
같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것을 작가로서
자신의 탐구 주제이자 활동 공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었다. 임의의 목적을 향해 팽팽하게 정렬된
시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신체들, 사물들, 매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석구석
탐색되고 확장된다. 최근 들어 이렇게 확장된 장은
일방적인 연구와 관람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와
역할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움직여보는 일종의
운동장 같은 것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간을
점유한 신체들의 상호 작용은 그에 부과된 목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게 된다.

밤의 카르토그래피, 외계-탐사-기록-관람

한편 박민하의 <밤의 카르토그래피>는 '화성을 본다'라는
단순한 문장에 보이지 않게 접혀 있는 운동의 시공간을
펼쳐 보인다. 먼저 화성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찍지 않는 탐사체의 시간이 있고(<밤의 카르토그래피 I>),
그 전에 탐사체의 동선과 세부 움직임을 계획하면서 마치
안무가처럼 그 움직임을 직간접적으로 미리 체험하는
조종사들의 시간이 있다(<밤 조종사들>). 화성에서 조각난
상태로 송신된 데이터는 흔히 화성의 파노라마 사진이나
지도 같은 공간적 재현 형태로 매끈하게 통합되어 지구
사람들에게 '화성을 본다'라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작가는 일반에 공개된 탐사 기록과 방대한 원 데이터를
검토하여, 화성의 공간적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어둠 속의 시간을 재구성한다.

광속으로도 단숨에 가로지를 수 없는 멀고 깊은
어둠 저편을 사진의 형태로 '보이게' 하는 일은 한
줌의 빛을 건지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일에 가깝다. 또는, 보려고 하는 자는 어둠에 잠긴다.
박민하는 스스로 이미지를 지향하는 관람자의 위치에서
움직여 나가면서 이렇게 빛에 면한 어둠의 사례들을
꾸준히 채집해왔다. 그 어둠이 한 가지 색조로서 화면을
장악했던 것은 아니다. 작가는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하는 외부적 규제(정치적 검열), 무언가를 보이게 하는
매체적 조건(영화관의 어둠), 무언가를 보이게 하기 위해
파괴되는 것(우주 탐사선 폭발 사고),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 보이게 하는 것(전쟁 무기) 등을 거쳐, 무언가 보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의 영도로서 어떤 원초적
어둠에 다다랐다. 이처럼 빛이 아니라 어둠에 의거하여
구축되는 시각성의 배치는 기존의 광학적 질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것의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제공한다.

<밤의 카르토그래피>에서 어둠은 관람자 또는
'보려고 하는 자'의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려는 지향이 형성되고, 그 지향이 나아가기
위한 노선들이 그려지고, 실제 그 노선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한 방법들이 모색된다. 그것은 빛을 향한 여정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어둠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때 어둠은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보편적
공간으로 주어지기보다, 보려고 하는 행위에 연루된
각각의 행위자들을 불균질하게 에워싸는 여러 겹의
장막처럼 나타난다. 탐사체와 원격 조종사, 작가와 관객이
처한 어둠은 동일하지도 일관되지도 않다. 한편으로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과 기대, 그에 대응하는 강박적
계획과 정보 수집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주는 혼란과 그에 반응하는 편집증적 상상, 무감각,
또는 어떤 멜랑콜리가 있다. 보이는 것이 없는 어둠과, 모든
것이 이미 다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관람자가 갇히게 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둠이 공존한다.

어떻게 보면 <밤의 카르토그래피>는 세계 전체가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송출하는 자기 가시화 장치로
재구성된 곳에서 그 너머의 어떤 순수한 어둠을 꿈꾸며,
그런 점에서 지난 세기의 영화관을 이상한 방식으로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체스판 또는 지도를
연상시키는 그리드 위에서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원정대 I, II, III>의 설치물들은 계몽주의의 전통에서
제국주의의 유산에 이르기까지 우주 개발을 비추는
과거의 빛과 어둠을 희미하게 전시장 내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본다는 것의 문제는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가시성의 질서가 어떤 어둠과 접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하고 또 보지 못하게 하는가는
아직 충분히 탐험되지 않은 미지의 어둠 속에 잠겨 있다.

/ 윤 원 화